


국립해양박물관 무료셔틀버스 운행안내

국립해양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선** | 

 부산역 (3번 출입구 공항리무진버스 정류소, 승차) — 박물관 (버스정류장, 승·하차) — 부산역 (4번 출입구 공항리무진버스 정류소, 하차)
- 횟수** | 화~금요일 5회, 토요일 7회, 일·공휴일 6회

회차	박물관 출발	부산역 도착/출발	박물관 도착	비고
1	10:00	10:30	11:00	
2	11:30	12:00	12:30	
3	14:00	14:30	15:00	
4	16:00	16:30	17:00	
5	18:20	19:00	19:30	
6	19:30	20:00	20:30	토, 일, 공휴일
7	21:20	21:40	-	토요일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며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운과 성공의 상징인 '청마(靑馬)의 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박물관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전', '바다에서의 삶과 영도 도시어부가전' 등의 기획전과 다양한 상설전시를 통해 해양의 중요성을 전하였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영도구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해양 분야 발전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초청행사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이 되고자 노력하였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강연, 음악회를 진행하며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셔틀버스와 비정기여행객선 취향으로 관람객이 보다 편하게 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박물관은 지난 한해 약 12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고, 2012년 7월 개관 후, 약 22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명소가 되었으며, 전시, 체험, 교육, 문화시설로의 기능을 통해 해양한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국립해양박물관은 박물관 내실화를 통한 역량강화를 통해 새로이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다채로운 해양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최상의 복합문화공간이 되겠습니다. '해양 분야 전시 다각화'로 해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다양한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로 해양 관련 의식을 높여갈 것입니다. 활발한 '유물기증 운동 전개'를 통해 해양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을 위한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와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가는 국립해양박물관이 되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새해, 귀댁에 행복이 가득 깃들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립해양박물관 임직원 일동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C O N T E N T S

PART 1 열린 마당 03

박물관은 살아있다!

PART 2 기획 전시 05

그림으로 쓴 역사책
반구대 암각화

PART 3 박물관 사람들 07

PART 4 박물관 교육행사 08

PART 5 박물관 소식 09

PART 6 사진 후기 10



열린마당

국립해양박물관은 살아있다!

2008년 2월, 제1회 부산항축제 준비를 위해 영도 동삼동 혁신도시개발지구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해양경찰서와 부산항국제크루즈터미널, 2동의 건물만이 외로이 서 있던 정말 황량하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풍경이었다. 대부분의 땅이 아직 기초공사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고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반조성공사 정도만이 진행되고 있었다. 바람은 또 얼마나 불던지... 참... 이곳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항만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이 약간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시민 참여의 불투명함 뿐 아니라 다수가 집객 했을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현재 박물관 데크 쪽의 추락 사고는 특히 염려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북항과 오륙도가 한눈에 들어오고 거대한 화물선을 비롯한 각종 선박이 오고 가는 바다 풍경만은 정말 장관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축제는 성황리에 치러 졌고, 그로부터 6년을 지나는 동안 매년 한번씩, 총 여섯 번의 항만축제가 개최되었다. 해마다 축제 준비를 위해 행사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진전되는 공사현장을 볼 때면, 평소 박물관이라는 곳에 큰 관심이 없었던 나조차도 은근한 기대와 흥분을 느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었다. 여하튼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동삼혁신지구의 변화는 가히 상전벽해라 할 수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 7월에 개관이후 15개월 만에 누적관람객 200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박물관 역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필자도 그 관람객 중의 한명으로 온가족 나들이로, 학생들과 현장수업으로 또는 업무상으로 수차례 박물관을 방문하여 도슨트 프로그램, 극장공연, 도서관, 식당, 커피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겨 보았다. 개관 막바지까지 전시 유물의 부족 등 콘텐츠의 빈약함을 우려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나름 주제별로 잘 정리된 전시콘텐츠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접안 데크, 멋진 야외공연장 등과 더불어 유려하고 웅장한 박물관 건물은 국내 최초의 국립해양박물관으로서의 존재감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었다.

이제 박물관은 단순한 유물의 전시 공간을 벗어나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학습·체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국립해양박물관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학습·체험공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공간 그리고 제도의 어려움을 새로운 관점으로 극복해 내야 한다. 시절은 바야흐로 콜라보레이션(협업)의 수준을 넘어 이종·잡종간의 다양한 조합인 하이브리드 패치워크의 시대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박물관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유지하되 다양한 외부그룹과의 협업과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조합으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박물관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더불어 콘텐츠의 세분화·전문화로 열혈 관람객 확대 및 야외무대 등 외부공간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식음파트의 고급화로 관람객 방문동기의 다양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최근 부산 영화계에서는 주류 상업영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영화들도 상영되고 있다. 현재의 주말영화 프로그램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해양영화특별기획전 등을 개최하고 남포동 피프거리까지 셔틀버스 및 해운대 미포까지 셔틀보트를 운영한다면 영화제를 방문한 많은 씨네필들에게 대단히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년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부산항축제 기간 중 평소에는 실행할 수 없는 '박물관에서의 1박2일' 같은 체험행사를 개최한다면 박물관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올 것이다.

부산에는 젊고 역량 있는 예술가들이 많다. 이들에게 야외무대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주말마다 다채로운 공연과 퍼포먼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 기존의 4시간 정도의 박물관 내 자원봉사를 확대해 박물관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형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더불어 대중적이며 품격 있는 강연의 지속적인 개최가 필요하다. 다양한 강연개최그룹과의 느슨한 제휴로 시작해서 차츰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벤 스틸러와 로빈윌리엄스가 주연한 영화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박물관을 소재로 이처럼 기발한 이야기를 보여준 작품이 있을까! 박물관이 살아 움직이는 재미난 상상을 해본다.

성현무(문화기획자, 고신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



기획전시



그림으로 쓴 역사책
The Ban-gudae Petroglyph

반구대 암각화



전시기간 : 2013.12.17(화)~2014. 1.26(일)

전시장소 : 국립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주 최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는 1971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 234-1번지 일원의 대곡천변 암벽에서 발견되었다.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의 북쪽 절벽 면에 고래를 비롯한 해양동물 90여 점, 호랑이 사슴 등 육지동물 100여점 등 약 300여 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동물 그림 외에도 사면, 얼굴, 배, 미늘, 고래잡이 모습 등 선사인들의 생활상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고래잡이 모습은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표현된 것으로 선사시대 인류의 문명사 연구에 중요하다.

이러한 암각화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1995년 국보 제285호로 지정되었고, 2010년에는 천전리 각석, 주변의 공룡발자국 등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 준비를 위해 잠정목록에 등재되었다.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그림들

반구대 암각화의 주요 소재는 호랑이와 사슴 등 육지동물과 고래·거북이 등 해양동물로 크게 나뉜다. 그 외 고래잡이 모습과 종교적 기능을 상징하거나 표현한 사면과 하늘로 나르는 배 등 약 300여 점의 그림이 바뀌면 곳곳을 채우고 있다. 중심 주제인 동물표현은 각각 육지는 수평으로, 해양동물은 수직으로 이동방향이 적용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육지동물은 측면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해양동물은 여러 시점이 조합된 방식이 사용됐다. 이러한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의 환경과 생활모습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된다.

반구대 암각화는 표현대상의 윤곽선을 선 또는 점으로 새기는 '선 새김'과 윤곽을 새긴 후 내부를 고르기 쪼거나 긁어내어 형상을 드러내는 '면 새김' 기법 위주로 제작됐다. 암각화 제작기법은 도구의 발달에 표현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반구대 암각화는 가는 선묘에 의해 소략하게 표현하는 단계에서 면 쪼기·긁은 선 새김·음각과 양각새김 후 갈기 등으로 제작기법이 발전하고 마지막에는 이들 새김기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였다.

반구대 암각화의 육지동물

암각화의 화면 중앙부터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공간에는 맹수와 초식동물로 구분되는 육지동물들이 집중 포진해 있다. 목책에 갇힌 호랑이와 호환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상징하는 듯 다리가 묶여 있는 표범, 그 아래로 뿔이 멋진 대형 사슴은 목이 고여 묶여 있다.

중앙부엔 장식기법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맹수, 아름답게 디자인한 사슴 형상이 이어지며 새끼 멧돼지와 인물들이 어울려 있다. 적갈색 털에 수직으로 검은 무늬가 있는 어린 멧돼지의 특징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있다. 이처럼 사실성이 강한 그림이 다른 동물 그림보다 크게 먼저 제작된 암각화 위에 덧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에서 멧돼지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화면 중앙 가장 윗부분 소형의 얼굴모양 주변에는 모호한 조형의 멧돼지 교미장면과 호랑이로 추정되는 맹수가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 짐승들의 몸통엔 붉은 선으로 무늬를 표현했는데, 몸통에 적용된 면 분할이 복잡해지면서 형태가 왜곡되었다. 암각화 중앙부의 동물들이 좌우 모두를 균형 있게 향하고 있는 반면, 우측에 있는 동물들은 대부분 좌측을 향해 있다. 이곳엔 인물을 중심으로 사슴과 여우 그 외 여러 동물들이 무리를 짓고 있어 당시 사육되던 동물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들 육지동물은 제작기법상 후대에 속하는 선 기법 위주로 제작되어 고래를 조각한 사람들과 시차를 두고 조각했음을 보여준다.

그림으로 표현된 육지동물 중에는 호랑이와 사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화면 중앙에 앉은 호랑이는 사지를 늘어뜨린 채 몸에 힘이 빠져 옆으로 누워있는 형상을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육지동물이 가로로 위치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독특하게 세로방향으로 표현되어 있어 주목된다. 호랑이의 형태적 특징이 적절하게 묘사되어 있고, 선 처리는 자신감에 차 있는 듯 단호하다.

화면 중앙부 상단에는 양 끝이 살며시 치켜 올라간 형태의 우리 위로 호랑이가 덧새겨져 있다. 우리와 호랑이의 크기는 합리적인 비례를 이루지 않지만, 우리의 경계 안에 호랑이를 가두고 있어서 맹수의 힘을 장악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호랑이 아래 있는 또 다른 우리 속에는 점박이 무늬가 뚜렷한 꽃사슴이 그려져 있다. 머리에서 목까지는 면으로, 몸체는 선으로 새겨 굵고 깊은 단순 선 새김으로 표현된 호랑이와 차별된 모습이다. 우측의 표범 역시 왼쪽 앞다리 발목과 오른쪽 뒷다리 발목이 서로 묶여 있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거리를 제한당하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해양동물

반구대 암각화에는 흑등고래·귀신고래·북방긴수염고래·향고래·돌고래·들쇠고래·범고래 등 다양한 고래들이 조각되었다. 이들이 전체 조사대상 해양동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까지도 반구대와 인접한 울산 앞바다가 고래의 중요 이동경로였음을 고려한다면 반구대 암각화에 등장하는 고래 무리는 당시 제작 집단의 생활상을 남긴 역사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화면 좌측에 집중 배치된 해양동물은 공통적으로 밑에서 올려보는 방향으로 조각되었다. 이 가운데 가는 선각으로 표현된 배 위에서 고래를 잡는 모습에는 20여 명의 인원이 승선해 있어, 당시 전문적인 집단에 의해 포경이 이루어졌음을 알려 준다. 또한 충실하고 정교한 고래 모습을 통해 단단한 금속도구를 이용해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반구대 전체 암각화 중 비교적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양동물을 대표하는 고래 중 수염고래는 갓 태어난 새끼를 머리 위 분기공 부근에 엮고 물 밖으로 내밀어 호흡을 도와주는 습성이 있는데, 화면 좌측 상단에 어미 위로 표현된 새끼 고래는 이러한 소염고래의 특징을 보여준다. 좌측 중앙부에는 대형의 미늘창[작살]에 찰려 괴로워하는 모습의 고래가 등장한다. 고래잡이가 후미에서 접근해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지느러미 뒤에 미늘창을 꽂은 듯 위치가 구체적이다. 면 쪼기로 처리된 고래와 양각 미늘창 그리고 외곽선을 수차례 갈아내어 고래 몸통의 반대쪽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화면 좌측 하단에 모여 있는 3마리의 고래는 북방긴수염고래로 등지느러미가 없고 머리가 매우 커서 몸통 길이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몸을 상하로 연동시키며 물을 가르는 이동 생태를 묘사하고 있다. 머리 위로 드러난 리본모양은 호흡 시 뿜어내는 물방울인 분기장면으로, 반구대 암각화의 여러 고래 중 생동감을 강조한 대표적인 고래 표현이다. 다른 고래들과 달리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있고 몸통 위로 선 문양을 표현한 흑등고래는 여러 고래 중 가장 크며, 사람들에게 포획된 상황을 보여주듯 운동감을 상실했다.

거북은 암각화 좌측 상단과 중앙 하단에 위치한다. 거북은 새가 하늘과 땅을 자유자재로 오가듯 물과 바다를 오가는 전령사와 같은 존재로 신성성을 상징한다. 좌측 고래 옆에 위치한 거북과 인물은 포경의 성공을, 중앙 하단 거북은 바다에서 긴 여행을 마치고 육지로 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목을 길게 빼고 앞다리가 꺾여 굴곡 되었고, 갈퀴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이 외에도 물고기를 입에 물고 날개짓하며 즐거워하는 가마우지와 상어 등 여러 해양동물들의 독특한 특징을 효과적으로 담아냈다. 더불어 고래를 비롯한 해양동물이 육지동물과 함께 그려진 것은 해당 암각화 제작의 선후관계를 알려준다.

박물관 사람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저물어 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관람객 120만 명이라는 새로운 기록과 함께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니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민간BTL사업으로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와 민간 시행사인 해양문화주식회사가 각자 업무 범위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9월, 박물관 운영실장으로 새로운 임무를 가지고 국립해양박물관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부임당시, 개관 1년을 갓 넘겼던 박물관은 이미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간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 가고 있었습니다.

개관 1주년을 넘기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많은 다짐과 계획을 세워봅니다. 올해는 개관의 설렘과 들뜬 분위기를 뒤로 하고,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박물관을 찾는 많은 국민여러분께 편의와 만족감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조직의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신명나는 직장문화로 바뀌어 나갈 생각입니다.

관람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올바르고 밝아야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도 그 긍정의 에너지가 전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창의적인 발상과 변화에 개방된 유연한 사고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곳으로의 벤치마킹을 통해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박물관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신명나는 직장은 우선 직원간의 소통으로부터 이루어 질 것입니다. 부서와 부서, 우리와 고객 사이의 벽을 허무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일이 박물관 운영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14년은 박물관 가족모두의 역량을 모아 국립해양박물관이 더욱 거듭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국립해양박물관 운영실장)



박물관 교육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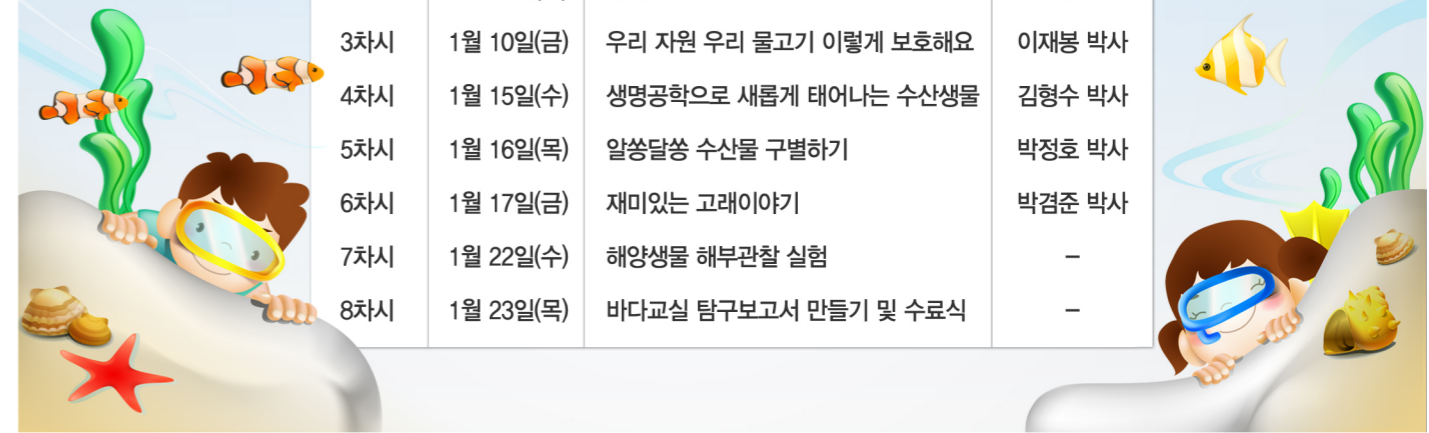
국립수산과학원 박사님과 함께하는 「나는야 해양학자 2기」

1월 8일~23일 / 매주 수~금요일 13:00~15:00 / 초3~6학년 / 50명 / 제1강의실 / 인터넷 및 전화 접수 / 무료

해양수산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래 해양학자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학특별프로그램.

* 감사 사정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차시	일자	내용	비고
1차시	1월 08일(수)	개강식, 박물관 전시해설 및 4D관람	-
2차시	1월 09일(목)	바다의 신비	오현주 박사
3차시	1월 10일(금)	우리 자원 우리 물고기 이렇게 보호해요	이재봉 박사
4차시	1월 15일(수)	생명공학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수산생물	김형수 박사
5차시	1월 16일(목)	알쏭달쏭 수산물 구별하기	박정호 박사
6차시	1월 17일(금)	재미있는 고래이야기	박겸준 박사
7차시	1월 22일(수)	해양생물 해부관찰 실험	-
8차시	1월 23일(목)	바다교실 탐구보고서 만들기 및 수료식	-



Happy Weekend | 충무공 전술비연의 암호를 풀어라

1~3월 / 매주 토요일 / 2회(12:30~14:00, 15:00~16:30) /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 50명 / 제1강의실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무료(재료비 별도)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말프로그램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술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전술비연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연을 만들어 보는 가족체험프로그램



박물관 소식



부산과학교육원, 항해용품 등 해양자료 173점 기증 2013.12.6
부산과학교육원은 '엔진 텔레그래프', '마그네틱 컴퍼스' 등 해양 관련 자료 173점을 국립해양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기증 받은 항해 용품들은 전시를 통해 바다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부산과학교육원과 연계하여 재미있는 체험학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3 크리스마스 소원 캐럴합창축제 2013.12.22
국립해양박물관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3 크리스마스 소원, 캐럴합창축제' 를 개최했습니다. 7명의 아동이(7개 팀, 총 140명 참여) 크리스마스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통해 희망을 전하는 자리로 합창을 통해 서로가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음악회 '가족과 함께 듣는 클래식(피아노 3중주)' 2013.12.27~31
겨울방학을 맞아 박물관에서는 작은 음악회 「가족과 함께 듣는 클래식」을 개최합니다. 피아노 3중주(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의 아름다운 선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으로 쓴 역사책 반구대 암각화 기획전 2013.12.17~2014.1.26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의 후원으로 '그림으로 쓴 역사책 반구대 암각화' 기획전을 1월 26일까지 선보입니다.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 를 주제로 탁본 4점, 사진·영상 70여 점을 통해 반구대 암각화의 독자성과 우수성, 그리고 인류 문명사에 지니는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3 바다사랑 송년음악회 2013.12.26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3 바다사랑 송년음악회가 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클래식 및 가곡, 국악과 해양영토를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 '아버지의 바다' 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홈페이지 새단장 2014.1.15~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새롭고 알찬 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 국립해양박물관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시, 교육, 행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토 후기

2013년 크리스마스소원, 캐럴합창축제

크리스마스를 앞둔 22일, 국립해양박물관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3 크리스마스소원, 캐럴합창축제' 를 개최했습니다. 7명의 아들과 그 친구들이 함께 크리스마스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통해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